

이제서야 일본 생활에 적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벌써 돌아갈 때가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만큼 후회 없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생활한 것 같습니다.

학업적으로는 유학생 과목을 위주로 듣고 정규과목도 한 가지 수강하였습니다. 유학생 과목 중에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본어사정연습 2A’,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를 배우는 ‘중상급 A 한자’, 일본 취업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일본사정연습 3A’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업과 비교해보면 일본에서는 발표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면서 한층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정규과목으로는 ‘사회정책론 I’을 수강했는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많아 고생했지만, 연습과 과제로 매주 리액션 페이퍼를 쓰며 점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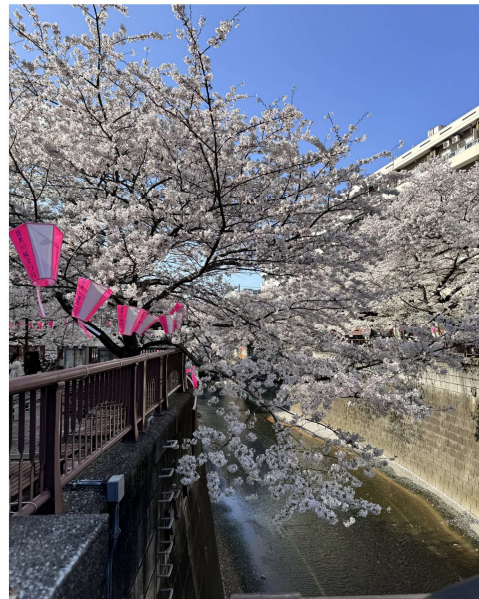
학업 외로는 만화연구부에 들어가 대면교류회에서 공통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림을 그리며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간중간 시간을 내어 마음이 맞는 기숙사 친구들과 나고야, 요코하마, 디즈니씨, 삿포로를 다녀왔습니다. 또 산노마츠리와 스미다가와 불꽃축제를 구경하고,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중 다도 체험을 통해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거나 맥도날드, 스타벅스의 계절 신메뉴도 즐기며 일본 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일할 때부터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 활동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던 회사의 설명회와 글로벌 취업 박람회에 참석한 뒤 몇 군데에 지원도 해보고 필기시험과 최종 면접까지 가보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 내년에 다시 일본에 돌아오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도 교수님인 타나하시 선생님, 수업의 하기와라 선생님, 미야케 선생님, 코바야시 선생님, 구 선생님, 빈데리아 선생님, 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덕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와 기숙사의 관계자분들 덕분에 안전하고 문제없이 유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교환학생 생활을 함께한 학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이 있었던 반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웠고, 저를 이루는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